

## 번역에서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이론연구: 소유구문 영한번역의 경우

윤재학  
(경희대)

### 1. 머리말

번역상에 발생하는 주요 오류로서 명료화(clarification), 과도번역(overtranslation)을 통한 확장(expansion) 등이 지적된다(Berman, 2000). 명료화는 원작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서술된 내용이 번역과정에서 명료성이 추가되어 원작자가 원하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확장은 간결하게 표현된 원문에 내용의 첨가가 이루어져 번역문이 원문에 비해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명료화와 확장은 개념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번역행위에서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원문의 정보손실이 없이 명료성이 증가한 표현을 위해서는 원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불가피하게 추가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명료화와 확장이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 구문인 소유구문의 번역을 고찰하여 번역의 체계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유관계가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표시하며, 이에 따라 소유구문이 대단히 빈번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영어와 한국어 간의 소유구문의 번역은 구조적, 의미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번역가들에게 특별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구문을 소개하면 다음 (1)-(2)와 같다:

- (1) Tweed's fair river  
 a. #트위드의 아름다운 강  
 b. 트위드라는 아름다운 강
- (2) CNN "Larry King Live" (2008년 6월 6일)  
 Hillary has hurt Obama's voters. And he also has hurt her voters.  
 a. #그녀의 투표자들  
 b. 그녀에게 투표한 사람들/유권자들

예문 (1)의 경우 격조사 ‘의’는 동격의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관계절로 풀어서 번역하는 소위 확장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어에서는 목적격 관계 의미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차이에서 번역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문 (2)의 her voters에 대한 적절한 번역으로는 ‘그녀의 투표자들’은 부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계절을 도입하게 되고, 원문에 존재하지 않은 명사 ‘사람들’ 혹은 ‘유권자들’을 도입한 결과 명료화와 확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사례이다.<sup>1)</sup>

번역학이 학문적 위상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단순하지 않은 번역의 예에서도 기계적인 번역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임기응변적 번역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당위적 과제이다. 따라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구문별로 해당 언어 간에 체계적인 일치성에 기반한 번역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은 이문화간의 소통적 측면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인지적 행위로서 인식하는 Hatim & Munday(2004), Munoz(2007), Albir & Alves(2009)의 노선을 기반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국어표현에서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 명칭보다는 ‘유권자들’과 같이 구체성을 띠는 명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라고 쓰면 명료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유권자들’과 같은 표현을 애용하게 되므로 명료화의 발생이 이루어진다.

Haspelmath(1997, 2003), Croft(2001, 2003)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라는 인지문법적 개념이 번역이론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소유구문의 영한번역을 사례 연구로서 제시하도록 한다.<sup>2)</sup> 본 연구는 의미, 화용론 기반에서 필자가 진행한 소유의미에 관한 선행연구 윤재학(2003, 2009)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확장하여 번역학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 2. 영한 의미 대조

본 절에서는 영어 구문에 나타나는 소유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고, 영어와 한국어 소유구문 자체 및 상호비교를 통해 의미 차이를 포착하고자 한다.

### 2.1. 외래화와 토속화

번역 방식에는 번역가가 원작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독자들을 원작자에게 가까이 이끄는 전략과 독자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작을 최대한 독자에 친화적으로 번역하는 전략이 있다.

Either the translator leaves the writer alone as much as possible and moves the reader toward the writer, or he [sic] leaves the reader alone as much as possible and moves the writer toward the reader.  
(Schleiermacher, 1813/1992: 41-42)

첫째 방식을 외래화(alienating), 둘째 방식을 토속화(naturalizing)라 부른다.<sup>3)</sup> 외래화와 토속화 중의 선택은 번역가들이 직면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전반적 텍스트의 분위기가 설정된다. 이 개념의 창시자인 Schleiermacher

2) 실제로 많은 번역가들이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훌륭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 유능한 번역가들은 이러한 체계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는 본 논문을 이 내재된 체계성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Venuti(1997)는 동일 개념을 foreignization, domestication으로 구분한다.

(1813/1992: 38)는 다루는 텍스트에 따라 번역가를 구분하고 상업적 텍스트에 대비하여 학술적, 예술적 텍스트의 번역가는 외래화 방식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헤밍웨이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헤밍웨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독자가 영어 원작을 읽는다고 가정할 때 받을 느낌을 한국어 번역에서도 최대한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외래화를 위한 이러한 이국적 느낌을 살리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에서 번역투 문체가 등장한다. 문학작품의 외래화 방식은 번역가가 토속화와 외래화 두 방식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번역방식으로 이해된다. Venuti(1997)의 경우에도 문학작품 번역에서 외래화를 강하게 옹호하였다. 특히 그는 “자문화 중심적 번역의 폭력을 자제하기 위하여” 독자들을 원작에 가까이 가도록 주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외국어 원작이 “폭력적으로” 영미문화 중심으로 번역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한 문화적 배려가 있었다(Venuti 1997: 20). 이는 영미문화의 패권주의를 완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적 다수자인 영미독자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취지에서 주장된 것으로 보인다.

영한 번역의 경우 외래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TV 외화시리즈 <형사 콜롬보>의 더빙을 들 수 있다. TV 텍스트인 <형사 콜롬보>에서는 주어진 영상에 대한 더빙 작업에서 두 가지 점에서 외래화를 실현시켰다. 우선 성우의 발성에서 자연스런 한국어투를 배제함으로써 이국적 색채를 가지는 외국어 말투의 전형으로 발전시켰다. 둘째로 텍스트를 문어체나 비토속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여 생소함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아래 대사와 같이 대명사의 경우 *you*를 ‘당신’, ‘그대’, *she*를 ‘그녀’로, 대명사 생략이 자연스런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국적 효과를 얻었다.

(3) 당신은 어설피고 더듬거리지만 늘 급소를 찾는군요.

한국 상황에서는 ‘폭력적 토속화’는 우려할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폭력적 외래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어투가 고급스런 이미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요 <고향의 봄> 가사와 신소설

<혈의 누>는 일본어에서 주격조사 대신에 한국어 ‘의’에 가까운 노(の)를 사용하는 통사적 특성을 한국어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일본어의 간섭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a,b)는 각각 한국어 표현 ‘내가 살던 고향’, ‘피눈물/혈루’가 외국어 간섭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의 일부인 (4c)에서도 외국어투가 나타난다. ‘그녀’, ‘한 잔의 술’과 같은 표현은 영어식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4) a.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b. 혈(血)의 누(淚)  
 c. 그녀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버지니아울프의 생애를 ...

한국적인 상황에서 번역투의 문장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원문번역에서 토속화나 외래화라는 번역 방식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한 번역의 결과 의도하지 않은 외래화가 발생하게 된 데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불완전 번역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외국어투 만연현상에 대한 경계나 비판과는 별개로 문학작품의 외래화 번역방식은 분명히 문화적 지배, 피지배 관계를 떠나서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노력으로서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화 번역을 선호하고 권장하는 것이 곧 한영구문과 어휘의 의미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수적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학교’, ‘우리나라’가 자연스러운 번역인데, *my father*, *my school*, *my country*를 외래화 시켜서 각각 ‘내 아버지’, ‘내 학교’, ‘내 나라’로 표현하여 외래화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한영소유구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없이 이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문학작품이 아닌 상업적 텍스트 번역에서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고 이 경우 토속화 방식이 매우 유리하다. 둘째, 영한번역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외래화 번역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영번역의 경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리나라’를 어느 경우에 적절히 *our country*, *my country*, *Korea*로 번역할 것인지는 여전히 단수적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미차이의 구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한국어 원문 입장의 외래화를 추구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our*로 번역

하게 되면 정보의 손실이 과도하여 의미전달이 되지 않을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래화와 토속화는 텍스트의 장르와 맥락에 따라 적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차이가 날 뿐 원본에 대해 의미, 화용적으로 가장 근접한 번역을 파악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유구문의 정확한 의미파악과 비교는 성공적 번역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 2.2. 영어 소유구문의 의미

영어의 대표적인 소유구문 형태인 A's B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 (5)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Huddleston & Pullum, 2002:473-75).<sup>4)</sup>

(5) Mary's green eyes	[d has body part h]
Mary's younger sister	[d has kin relation h]
Mary's husband	[d has married relation h]
Mary's boss	[d has superior h]
Mary's secretary	[d has subordinate h]
Mary's friend	[d has equal h]
Mary's team	[d is member of h]
Mary's debut	[d is performer of h]
Mary's book	[d is creator of h]
Mary's new house	[d is owner of h]
Mary's honor	[d has human property h]
Mary's anger	[d has feeling h]
the summer's heat	[d has non-human property h]
[이하 생략] ... ..	참고: d: dependent, h: head

이러한 다의성은 Langacker(1995)의 경우처럼 소유구문이 소유관계(my car), 포함관계(my arm), 가족관계(my mother)라는 세 가지 원형(prototype)을 기본으로

4) 여기 소개된 다의성은 분류 자체가 상당 부분 자의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의성의 정의에 내포된 모호성을 반영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조합으로 파생적 의미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하거나, 기본적으로 소유(ownership)의 의미가 바탕이며,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은 은유를 통한 의미확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Nikiforidou(1991)는 다양한 은유 연결망에 의해서 전체와 부분(*my hand*), 가족 관계(*John's wife*), 경험자-경험체 관계(*the woman's anger*), 목적격 소유(*the President's murder*)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Partee(1983/1997)의 경우에도 소유격 구문 *John's car*에서 John과 해당 차량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미적 관계는 명시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화용적 상황에 의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굴절 소유구문 A's B 유형과 전치사 소유구문 B of A가 아래 (6)과 같이 소유관계에 따라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7), (8)의 예는 둘 중 한 가지 형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Quirk et al., 1985:321).

- (6) a. *The ship's funnel* is red.  
 b. *The funnel of the ship* is red.  
 (7) a. John's school  
 b. ?the school of John  
 (8) a. the front of the house  
 b. \*the house's front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하여 주된 요인으로 Quirk et al.(1985:1277-82)은 A구의 유정물 여부와 같은 어휘적 요소, A와 B의 명사적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주격 해석은 두 구문에서 다 자유로우나 목적격 해석은 *of*에 국한되는 경향과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에서는 전치사 구문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소통적 요인으로 정보의 초점이 뒤쪽인 영어의 경향에 따라 중요한 정보의 위치여부에 의해 구문이 선택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두 구문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래 (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굴절 소유구문은 주격 의미를 선호하고, *of* 소유구문의 경우 목적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Quirk et al., 1985:322). 이는 사실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어휘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

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작주로 나타나는 유정물 주어의 경우 주로 굴절 소유구문, 반대의 경우 전치사 소유구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 (9) a. the family's support  
b. the examination of the fire department

둘째, 역사적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어 아래 (10)과 같이 동격의 의미는 현대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of* 구문에 국한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 (10)a. The game of golf  
b. \*golf's game

마지막으로 굴절 소유구문에는 불가능한 관계로서 *of* 소유구문에만 나타나는 중점어 명사의 성향을 표시하는 관계로 아래 (11)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11)a. a woman of courage  
b. \*courage's woman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전치사 소유구문이 굴절 소유구문에 비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보다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Quirk et al., 1985, Taylor, 1996).

형식의미론의 전통에서는 Partee(1983/1997) 등에 따르면 영어 소유구문은 의미적 미명세(semantic underspecification) 상태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관계는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Partee 방식에 따라 *John's car*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진리조건으로 나타내면 아래 (12)와 같다. 의미적으로는 미명세인 표현의 구체적인 관계를 화용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는 주어진 대화상황에 적합한 관계는 자유변수 관계 R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 (12)a. [[ John's ]] =>  $\lambda P \lambda x[P(x) \ \& \ R(j, x)]$

b. [[ John's car ]] => ix[car(x) & R(j, x)]

이에 따라 문맥에 따라 자유변수 R의 값이 ‘법적인 소유’, ‘법적인 점유’, ‘사적 점유’, ‘디자인 관계’, ‘응원차량’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 2.3. 격조사 ‘의’와 한국어 소유의미

본 소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영어의 소유구문을 한국어 격조사 ‘의’가 나타나는 구문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소유구문은 영어에 비하여 관계의 제한성이 높음을 보인다. 격조사 ‘의’ 구문은 한자어와 일본어의 간접현상으로 사용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한국어 소유관계에 다양성을 증가시킨 면이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격조사 ‘의’ 구문은 규칙성을 보이기도는 어휘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합성명사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어적 소유구문 표현에서도 영어에 비해 제한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소유격 형태를 구어적(informal)/무표적(unmarked) 표현과 문어적(formal)/유표적(marked) 표현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현 양식		구어 표현	문어 표현
1인칭	단수	내 가방	나의 가방
	복수	우리 가방	우리의 가방
2인칭	단수	네/니 가방	너의 가방
	복수	너희/니네 가방	너희의 가방
3인칭	단수	철수 가방	철수의 가방
	복수	아이들 가방	아이들의 가방

<표 1> 한국어 소유격 형태의 예

구어체에서는 소유격 형태로서 영형(零形, zero form)이 사용되어 통사적으로는 합성명사 구문과 구별되지 않는다. 반면 문어체에서 격조사 ‘의’를 소유자에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구어표현의 1, 2인칭 단수형태인 ‘내’, ‘네/니’를 ‘나/너’+‘의’의 축약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축약형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격조사 ‘의’와 결합한 형태인 ‘\*내의/\*네의’는 허용되지 않고, 처소격, 여격, 목적격 형태로는 ‘내/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네’가 주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반적 유형으로 구어형태인 복수형 ‘우리’, ‘너희’와 3인칭 형태에서도 영형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내/네’도 축약형이 아닌 기본형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표 1>의 소유격형태의 특이한 사항으로 1, 2인칭에서는 대명사로 나타나는데 반해 3인칭 대명사 형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3인칭 대명사 단수와 복수로 ‘그’, ‘그들’이 문어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생소한 표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인칭 대명사를 구어적 소유구문에 적용하면 ‘\*그 가방’, ‘\*그들 가방’과 같이 비문법적 결과에 이르는 것이 이런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영한 번역이 당면하는 어려움의 예로서 아래 (1),(2)의 구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의 소유표현을 한국어의 소유표현으로 직접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에 비해 많다면 이는 한국어 소유구문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 (1) Tweed's fair river
  - a. #트위드의 아름다운 강
  - b. 트위드라는 아름다운 강
- (2) [her voters]
  - a. #그녀의 투표자들
  - b. 그녀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소유관계의 제한이 Partee(1983/1997) 방식처럼 자유변수 R을 통해 전적으로 화용론에 의지하는 영역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은 언어에 따라 소유관계의 의미적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영어와 한국어 구문 (1)-(2)의 대조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나타난 대조는 화용적 조건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선거상황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로 바꾸어 설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조가 발생하며 맥락의 풍부함 여부나 화용론에서 통제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소유관계의 대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유관

계의 차이를 전적으로 화용적 차이로 파악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의미적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번역을 위한 의미의 대조관계 파악에서 소유구문이 중요한 분야로 부상한다.

위의 예문 (1)에 나타난 바와 다르게 동격 해석을 받는 예외적 경우로서 ‘대역의 죄’를 들 수 있다. 이는 ‘대역죄’라는 합성어의 존재가 동격 해석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격 해석과 목적격 해석이 나타나는 것은 격조사 ‘의’의 통사적 유사성을 근거로 한문원전의 之를 ‘의’로 번역하고, 일본어 조사 노(の)를 ‘의’로 번역한 역사적 관행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에서 ‘부모의 공양’은 일반적으로 주격 해석인 한국어 틀에서 벗어나 ‘부모를 공양’이라는 목적격으로 학습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어투의 발생에 이른 것이다.

(13) <소학언해>

맹자 가라사대... 부모의 공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 한 불효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향의 봄> 가사 (14)에서는 일본어에서 주격조사 대신에 한국어 ‘의’에 가까운 노(の)를 사용하는 통사적 특성을 한국어에 그대로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14)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는 ‘내가 살던 고향이’ 적합하다. 일본에서 교육 받은 작가 이인직은 신소설의 효시 ‘혈(血)의 누(淚)’(1906년)를 발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어식으로 노(の)의 번역투인 ‘의’를 첨가함으로써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된다. ‘혈의 누’의 의미는 ‘피눈물’로서 ‘피의 눈물’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며, 한자어 표현으로도 ‘혈루’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결국 번역체에서 시작된 ‘의’가 현재 공시적 관점에서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아래 (15)와 같은 표현은 의미적으로 소유의 한계를 다소 벗어난 경우로서 중점어의 속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 (15)a. 역전의 명수, 위기의 주부, 자유의 투사  
b. 고독의 가을, 야망의 계절, 불의의 일격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자주 통용되어 확립된 표현만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익숙한 표현만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 구문의 허용여부는 합성어 구성요건과 같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래 (16)과 같이 유사한 영어표현에 대한 적절한 번역으로서 ‘의’ 구문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견된다.

- (16)a. a woman of courage: #용기의 여인  
b. the love of power: #권력의 사랑  
c. men of science #과학의 인간

동일선상에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의 번역의 일부인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서두에 나타나는 ‘국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 번역 ‘국민의’가 내포하는 의미적 모호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 (17)a.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b.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와 관련하여 영어에서 앞에 나타나는 명사구를 뒤의 명사구가 후행 수식하는 A preposition B 구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관행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before*, *after*, *outside*, *by/beside*, *behind*, *above* 같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전치사의 경우 한국어 ‘전/앞’, ‘후’, ‘밖’, ‘옆’, ‘뒤’, ‘위’ 등 불완전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시공관계가 아닐 경우 일부가 ‘B의 A’의 구문으로 번역된다. 나머지 경우에는 관계절의 형태로 풀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Quirk et al.(1985:1274-75)에 나열된 다양한 전치사구 후행수식의 경우, 위에서 분류한 세 가지 경우의 한국어 번역을 기준으로 나열하여, 시공관련 불완전명사 번역, ‘B의 A’ 번역, 단순 명사구가 불가능하여 관계절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번역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각각 (18)-(20)로 나타낼 수 있다.

(18) passengers <u>on board</u> the ship	선상(의) 승객들
action <u>in case of</u> fire	화재시(의) 행동
the house <u>beyond</u> the church	교회너머(의) 집
two years <u>before</u> the war	전쟁(의) 2년 전, 전쟁 전(의) 2년
a tree <u>by</u> a stream	시내 옆(의) 나무
(19) a man <u>from</u> the electric company	전기회사의 사람
the meaning <u>of</u> this sentence	문장의 의미
the man <u>with</u> a red beard	빨간 턱수염의 남자
the girl <u>with</u> a funny hat	이상한 모자의 소녀
(20) the road <u>to</u> Lincoln	#링컨의 길, 링컨에 이르는 길
this book <u>on</u> grammar	#문법의 책/서적, 문법서적
a delay <u>pending</u> further inquiry	#추가조사의 지연
the present <u>for</u> John,	#존의 선물, 존을 위한 선물
the man <u>for</u> the job	#작업의 사람, 작업을 위한 사람
the woman <u>with</u> the child	#아이의 여인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완전명사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격조사 ‘의’가 수의적으로 불완전명사에 추가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명사구의 연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또한 시공관계의 전치사는 규칙적으로 (18)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반하여 (19), (20) 두 가지 유형은 통상적인 소유관계의 *of*를 제외하면 우연적인 속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20a) *the road to Lincoln* 은 ‘링컨의 길’이 불가능한 반면, *the road to success*는 ‘성공의 길’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같은 표현이 ‘성공의 도로’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위에서 예측한 ‘의’ 구문의 합성어적 속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의 경우 *of*가 다른 전치사에 비해 의미정보가 가장 적으며 문법적 속성이 기능의 대부분이라는 점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예문 (21)과 같이 명사화 구문에서 동사가 동사성을 상실하면서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요구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전치사가 바로 *of*이다.

- (21) a. They polished the furniture: their polishing of the furniture.
- b. Smith writes novels: the writing of novels (by Smith).
- c. The enemy destroyed the city: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둘째, 아래 예문 (22)에서와 같이 전치사 *of*는 다른 전치사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미 변화없이 생략될 수 있다.

- (22) John went out (of) the door.  
 Mary got off (of) the grass.  
 Merchandise is flying off (of) the shelves

한국어 ‘의’가 위 (18)에서 보여준 수의성은 영어의 *of*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속성이 매우 약한 격조사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of* 구문과 ‘의’ 격조사 구문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소유구문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Kempson(1977)의 접근방식처럼 일반적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영어의 경우 특정하지 않으면 *have*와 *be*를 통해 연결되는 관계이며, 한국어에도 ‘가지다’, ‘이다/있다’ 등 유사하게 기본 서술관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소유구문으로 분류되는 A’s B, B of A나 ‘B의 A’ 구문에도 이와 같은 기본 서술관계가 이전되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관찰된 일치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영어의 A’s B, B of A 구문은 전형적 소유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A의 유정물 여부에 따라 구문의 선호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는, 굴절형태로서 문법화가 더 진행된 결과로 A’s B 구문이 B of A 구문보다 소유관계에 더 가까운 속성의 의미로 제한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of* 구문은 이 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어 ‘의’ 구문은 문어적 표현에서 소유에 관한 독점적 구문이기 때문에 유정물 여부에 상관없이 영어의 A’s B 구문, B of A 구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능한 관계는 영어에서 유정물 여부에 따른 두 구문 간의 일종의 상보적 관계를 제외하면 한국어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의미의 제한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A의 B’는 항상 A’s B 혹은 B of A로 번역이 가능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2.4. One’s, One’s Own과 한국어 소유구문

영어에서 단순 소유격 *one’s*와 강조적 지정사(emphatic determinative) *one’s own*의 의미차이는 *one’s own*의 경우 독점적 소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Quirk et al., 1985:362-63). 단순한 점유관계가 아닌 독점적 소유관계를 구분할 때는 *one's own*만 적절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새 차를 몰고 나온 친구 B에게, A가 아래 예문처럼 단순 소유격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으로 (23B)가 발화되는 것이다.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미 목격한 상태에서 B의 점유성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대화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3) A: Is this your car?  
 B: Yes, what do you mean?

이런 경우에는 (24)와 같이 *one's own* 형태의 사용으로 원하는 대화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 (24) A: Is this your own car?  
 B: I wish. No, it's my dad's.

아래 예문 (25)의 두 문장은 적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청자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와 의견은 자주 발표하지만 창의적 의견은 없고 항상 남의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25a)는 의견 개진을 호소하는 발언으로 적절한 반면, (25b)는 창의성을 촉구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 (25) a.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pinion for a change?  
 b.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wn opinion for a change?

예문 (26)에서도 (a) 예문은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b) 예문은 셔츠를 입긴 했으나 본인 소유의 셔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 (26) a. He didn't wear his shirt.  
 b. He didn't wear his own shirt. (Instead he wore mine.)

이상을 종합하여 *one's*와 *one's own*의 의미를 비교하면, *one's*의 경우 위에서 Huddleston & Pullum(2002)에 나열된 넓은 의미의 소유관계가 가능한 반면 *one's own*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소유에 국한되어 결과적으로 독점적 소유의미로 특화되는 사용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어 *one's*, *one's own*과 비교할 때 한국어 소유격 대명사 ‘내/니’는 의미의 범위가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my/your*와 상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니’이지만 위의 (23), (24)의 맥락에서 사용된 (23')은 이러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고 점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소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해당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23') 이거 니 차니?

또한 (25)의 환경에서도 아래 (25')과 같은 문장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your* 보다는 *your own*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어 환경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의견이 아닐 경우 ‘내 의견’이라기보다는 ‘남의 의견’으로 명확히 하는 경향은 ‘내’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25') 한 번쯤은 니/네 의견을 얘기해 봐라, 응.

또한 아래 (27)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경우 *one's*와 *one's own*의 불일치가 부정어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28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어 ‘니’에서는 소유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단 소유격을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대신에 (28b)처럼 관계절 형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27) His hat is not his own.

(28) a. #니 모자 니 꺼니?

b. 니가 쓰고 있는 모자 니 꺼니?

다시 말하면 (28a)에서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니 모자’는 ‘니가 쓰고 있는 모자’라는 점유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어의 경우 ‘내/니’가 영어의 *my/your*와 *my own/your own*의 대조가 가지는 두 의미 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의미를 일부 공유한다는 직관을 반영하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

배타적 소유를 위한 의미로는 ‘-만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one's own*의 의미를 일부 공유하면서도 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나만의 차’는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공유가 허락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미국 여자 프로야구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A League of Their Own* (1992)이라는 작품이 있었다. 이 영화는 한국어로 아래와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 번역되었다.

- (29)a. A League of Their Own  
b. 그들만의 리그

영화의 배경은 남자 야구선수들이 전쟁터로 불려나가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 위기에 있던 2차 세계 대전 중의 미국의 이야기이다. 프로야구 중단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남자들만 출전하는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여자들도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따라서 남자들의 메이저리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여자들 ‘고유의’ 리그라는 독자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their own*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가장 근접한 한국어 ‘그들만의’가 가지는 배타적 의미가 가미되어 한국어 번역에서는 폐쇄성이 부각되는 쪽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파생된 유행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등이 폐쇄적 의미로서 자주 등장한다. 아래 내용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구글 검색의 일부이다. 이는 영어의 *their own*과는 다른 ‘-만의’ 구문의 배타적 의미를 반영하는 사실이다.

- (30)a. 송윤아 설경구, 그들만의 리그에 동참하다.  
[<http://mixiworld.tistory.com/175>, 2009년 5월 10일]  
b. “그들만의 리그 아닌 ‘화합 축제’ 될겁니다”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28일]

- c. 그러나 싱크 탱크는 '그들만의 리그'라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다.  
[인터넷 한국일보, 2008년 5월 17일]

이상에서 관찰한 영어 및 한국어 구문 자체 내에서의 차이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소유구문의 대조분석의 결과의 차이점은 다음 세 가지 사실로 압축된다. 첫째 영어의 경우 *of* 구문, *one's* 구문, *one's own* 구문 중에서 *of* 구문에서 가장 다양한 관계가 가능하며, *one's own*의 경우 가장 제한적인 관계에 국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어에서는 문어표현인 격조사 '의' 구문이 구어표현 영형 소유구문에 비해 더 다양한 관계를 가지며, '-만의' 구문이 가장 제한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두 언어의 소유구문 대조분석의 결과 한국어 단수 소유구문 '내/니'는 영어 표현 *one's*와 *one's own*의 중간적 의미를 가지며, 한국어 '-만의'는 영어 *one's own*보다 더 제한적인 관계에 국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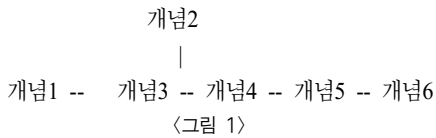
### 3.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 3.1. Haspelmath(1997, 2003), Croft(2001,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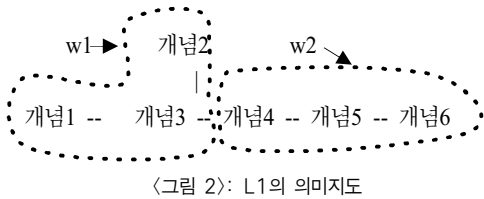
Haspelmath(1997, 2003)와 Croft(2001, 2003)가 제안한 개념공간(*conceptual space*)과 의미지도(*semantic map*)는 언어의 유형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개념공간은 범문화적이고 비언어적 인지적 개념으로서 유사개념이 상호관련 정도차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공간을 말한다. 반면 의미지도는 특정 언어의 어휘나 구문이 관련 개념공간에 투사되어 배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개념공간에 언어별로 다른 의미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의미지도 모델은 어휘의 의미 변천을 보이는 문법화 과정,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 간의 어휘 의미비교에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번역과정에 적용시켜 번역작업의 체계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번역과정에 대한 적용은 두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번역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개념에 대한 두 언어의 어휘적 일치성을 추구하는 인지적 행위이기 때문에 개념공간, 의

미지도의 기본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인지구조를 반영하는 하나의 인지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둘째로 실용적 측면에서 번역의 응용도 구로서 상세한 의미지도를 개발한다면 일반 번역은 물론 기계번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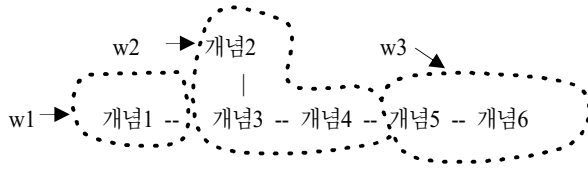
위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예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서로 연관된 개념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의 어휘적 분할도 이를 반영하도록 제한된다. 어떤 언어 L1에서 여기에 나타난 개념공간을 w1과 w2라는 두 개의 어휘로 분할하여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w2가 개념4와 개념6을 나타낸다면 개념5도 함께 w2의 의미의 일부로 나타나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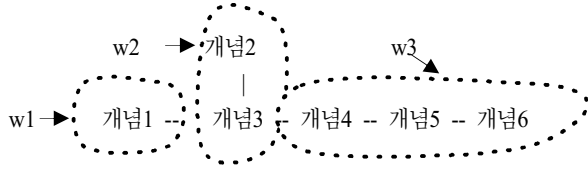
이와 같은 개념공간을 표시하는 어휘의 수와 표현영역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언어 L1의 어휘를 개념공간에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은 어휘지도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언어 L2에서는 L1과는 다소 다르게 해당 개념공간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세 개의 어휘에 의해서 삼등분하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언어 L3는 L2와 같은 수의 어휘를 갖고 있더라도 <그림 4>와 같이 각 어휘의 표현 영역은 L2와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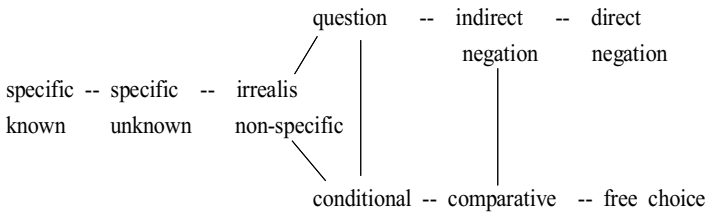


<그림 3>: L2의 의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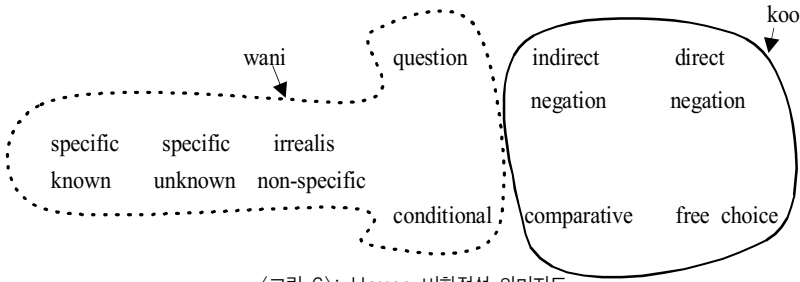
<그림 4>: L3의 의미지도

Haspelmath(1997)가 제안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Haspelmath는 40개의 언어에 나타나는 비한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s)에 대한 대조분석을 실시하여 몇 가지 일반적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언어에서 비한정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형태적으로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범주에 속하는 대명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의문대명사, 비한정 표지와 결합한 의문대명사, 혹은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총칭명사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비한정 대명사가 형태적으로 관련된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비한정 대명사가 관련 어휘에 비해 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pelmath(1997:236)는 이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관찰된 사실을 어휘지도의 형식으로 종합하였다. 아래 <그림 5>는 그의 연구대상 언어에서 발견되는 어휘 형태와 인지적 개념에 근거하여 제안한 비한정성 개념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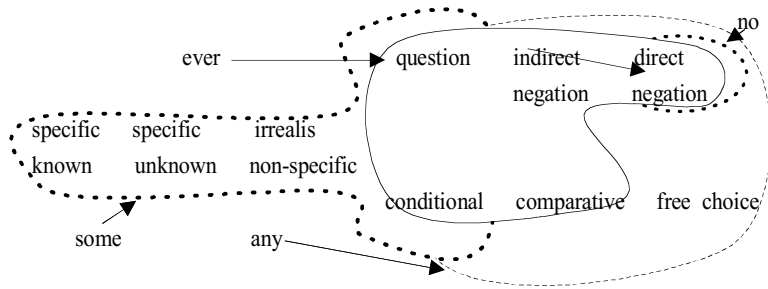


<그림 5>: 비한정성 개념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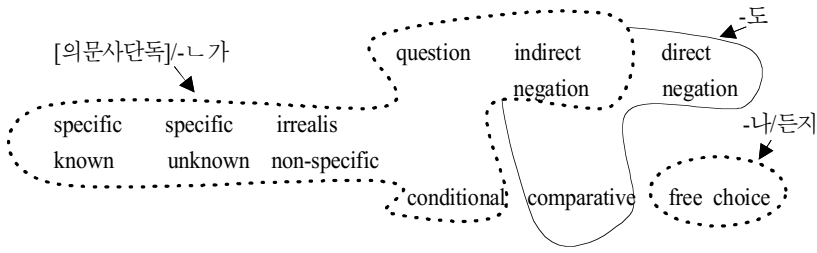
<그림 5>의 개념공간에 대한 의미지도의 예로서 Hausa, 영어, 한국어의 경우를 아래에 각각 나열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Hausa의 경우 *wani*와 *koo*라는 두 개의 어휘로 개념공간을 양분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어의 경우에는 *some*, *ever*, *no*, *any*라는 네 개의 어휘가 일부 공간에서 중첩성을 보이며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의문사단독]/-ㄴ가’, ‘-도’, ‘-나/든지’라는 세 가지 어휘군이 약간의 중첩성을 나타내면서 분할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6>: Hausa 비한정성 의미지도



<그림 7>: 영어 비한정성 의미지도



〈그림 8〉: 한국어 비한정성 의미지도

이러한 의미지도가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차이를 나타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문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예문 (31)은 중의적이다. 해당 어휘 *problem*과 관련되어 (a)와 같이 존재양화사적 의미와 (b)와 같이 전칭양화사적 의미해석으로 분류된다(Haspelmath, 1997:117). 아래 문장에서 *any*는 (a) 해석에서는 부정극어로서 의미이고, (b) 해석에서는 자유선택(*free choice*)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 (31) If she can solve any problem, she'll get a prize.  
 a. ('existential') 'If there is any problem she can solve, ...'  
 b. ('universal') 'If she can solve every problem, ...'

위 문장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직관은 영어 화자와 다소 다르게 중의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래 (32)의 (a) 혹은 (b) 중에 하나의 해석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2) a. 그녀가 아무 문제라도 풀 수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b. 그녀가 어떤 문제나 풀 수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언어 화자들의 중의성 포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 해당 어휘를 표상하는 위 <그림 7>과 <그림 8>을 비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영어의 경우에는 *any*가 자유선택 개념공간과 조건문의 개념공간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서 중의성의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자유선택 개념공간은 '-나', 조건문 개념공간은 '-라도'가 담당하여 어휘분류가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 3.2 한영 소유관계의 의미지도

위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어와 한국어 소유구문에 대한 개념공간과 의미도를 제안하도록 한다. 앞에 제시한 예에서는 개념공간이 분절적인 개념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동일한 개념이 비분절적인 스펙트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의 논의에서 ‘소유구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유의 개념이 이미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어의 *one's*, *one's own*, *B of A* 구문과 의미적으로 이에 상대되는 ‘A의 B’, ‘-만의’ 구문을 중심으로 의미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유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만족한 것이었는데, 소유의 정의를 법적 소유에서 어디까지 확장하여야 하는지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Taylor(1989, 1996)가 제안한 경험적 게스탈트(*gestalt*)로서 소유의 개념을 채택하여 소유라는 것은 전형성(*prototype*)에 기반한 관계로 인식하고자 한다. Taylor(1996:340)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의 집합을 소유의 전형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많고 정도가 전형에 가까울수록 전형적 소유의 의미이고 요소가 적고 관계가 전형에서 멀어질수록 비전형적 소유 개념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

- (33)a. 소유자는 특정한 사람이다.
- b. 소유의 대상은 무정물이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물건이다.
- c. 소유관계는 독점적이며 이는 하나의 소유 대상에 일반적으로 한 소유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소유물로서 통상 다수의 개체가 존재한다.
- d. 소유자는 소유물에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타인들은 소유자의 허락을 통해 서만 소유물에 접근할 수 있다.
- e. 소유물은 통상적으로 상업적 혹은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5) Haspelmath(1997)는 개략적으로 한국어 의미지도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세분하여 수정 보충한다면 ‘라도’의 경우 ‘도’나 ‘-ㄴ가’와 달리 조건문에 나타나는 부정격어 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본 문장에 대한 보다 자연스런 의미로 볼 수 있다.

- f.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구매, 상속, 선물 등의 특별한 거래 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소유자가 판매나 헌납과 같은 추가적인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까지는 지속된다.
- g. 일반적으로 소유는 분, 초 단위가 아닌 연, 월 단위로 측정되는 장기적 관계이다.
- h.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유물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경우에 따라서 소유물은 소유자의 영속적 혹은 정규적 소지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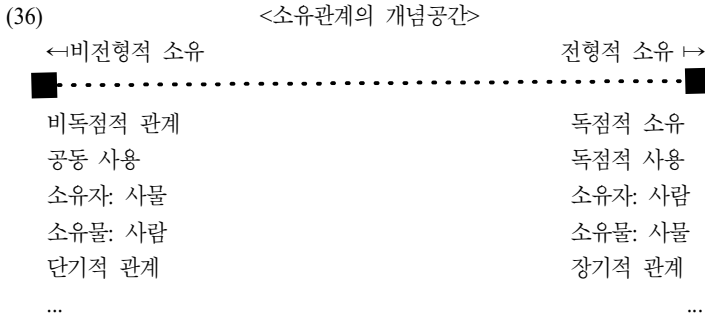
앞서 2.1에서 제시한 *Partee*의 자유변수 *R*의 도입을 통한 형식의미론적 접근 방식으로는 아래 (34), (35)에 나타난 대조를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용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관계로서 *John*과 *car*의 관계나 *the lady*와 *cat*의 관계에서 비대칭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 측면을 고려한 전형성에 바탕을 둔 *Taylor* 방식의 접근방식에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 (34) a. *John's car*  
b. *#the car's John*
- (35) a. *the lady's cat*  
b. *#the cat's lady*

굴절 소유구문의 주요한 기능으로서 한정적인 *John*이라는 대상을 통하여 이 개체와 관련된 *car*를 지칭하기(*topic identification*)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상황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John*이라는 대상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차를 구별해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차가 가지는 관계를 통하여 *John*이라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지시의 목적에 반한다. 더욱 간단하게 *John*이라고 지칭하면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소유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35)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 애완동물을 인식 방향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a)는 대화의 자연스런 지칭방식인 반면 (b)의 경우는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대화상황이 애완동물의 세계를 그린 만화영화에서는 애완동물의 눈을 통해 인간을 접근하

는 방식이므로 (35b)도 가능한 구문이 될 수 있다.<sup>6)</sup>

위 (33)에 나열한 전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소유의미 관계에 대한 개념 공간을 설정한다면 아래 (36)과 같이 우측으로 갈수록 위에 제시한 원형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는 관계이고, 좌측으로 갈수록 반대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2절에서 고찰한 영어와 한국어 소유구문의 차이를 바탕으로 소유관계 허용 위계를 살펴보면 아래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영어에서 *of* 구문보다 *one's* 구문이, 그리고 *one's*보다 *one's own*이 보다 더 전형적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어 구문 중에서는 ‘의’ 구문, 영형 구문, ‘-만의’ 구문 순으로 소유관계의 전형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영 구문 비교를 통하여 ‘내’가 *my*와 *my own*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며 ‘-만의’ 구문이 영어 *one's own*에 비해 더 전형적인 소유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37) 소유관계 허용 스케일
- a. 영어 소유구문 비교:  
of 구문 < one's 구문 < one's own
  - b. 한국어 소유구문 비교:

6) 따라서 자동차들을 의인화한 만화영화의 세계에서는 (35b)과 유사한 *the car's man*과 같은 구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33)의 전형성은 대화맥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 구문 < 영형 구문 < ‘-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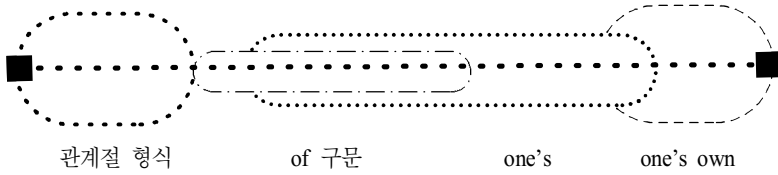
c. 한영 소유구문 비교:

my < 내 < my own  
 one's own < -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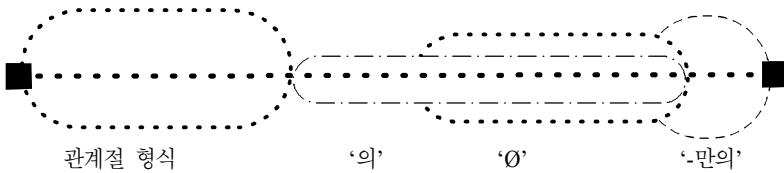
한영 소유구문의 관계를 개념공간에 나타내면 각각 아래 (38)과 같은 의미지도  
 를 도출할 수 있다.

(38) 한영 소유관계 의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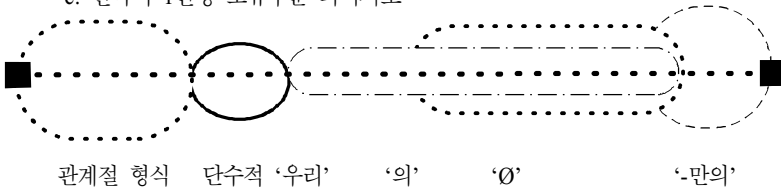
a. 영어 소유구문 의미지도



b. 한국어 소유구문 의미지도



c. 한국어 1인칭 소유구문 의미지도



위의 의미지도를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one's own*이 가장 전형적인 소유관계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 *one's*의 영역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맥락에  
 따라서 둘 다 허용되는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영어 *one's*의 관계가 다양하고

이에 비해 *of* 구문이 더욱 다양하지만 철저하게 비전형적인 소유관계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는 관계절이 담당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만의’가 영어의 *one's own*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적 사용의 의미 등 소유관계의 강한 전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영형 소유구문과 ‘의’ 구문이 중첩성을 보이지만 둘 다 영어 *one's, of* 구문의 오른쪽 공간을 담당하여 한국어 소유구문의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38b)의 의미지도는 한국어 3인칭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1, 2인칭과 3인칭을 분리한 근거는 1, 2인칭의 경우 윤재학(2003)에서 설명한 단수적 ‘우리/너희’의 존재 때문에 개념공간이 다르게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인칭 소유구문 의미지도 (38c)가 3인칭 의미지도 (38b)와 다른 유일한 부분은 (38b)에서 관계절 형식이 차지하는 공간의 일부를 단수적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에서 *my*로 표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우리’로 표현되는 경우를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38)의 의미지도를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번역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지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유관계 개념공간을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최소의 전형성을 소유지수 0으로 표시하고 최대의 전형성을 소유지수 10으로 표시하도록 하자. 이에 따라 (36)과 (38)의 굵은 점선의 좌측 극단은 소유지수 0 지점을, 우측 극단은 소유지수 10을 표시하게 된다. 매우 비전형적 소유관계를 나타내어 소유지수 1을 가지는 관계는 영어와 한국어 동일하게 관계절로 표현될 것이며, 극단적으로 전형적인 소유관계를 보이는 소유지수 10의 경우에 영어의 *one's own*, 한국어 ‘-만의’ 표현이 담당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소유지수 1과 10 사이의 지점에 대한 표현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면 (39)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39) 소유지수에 따른 한영 소유표현  
a. 3인칭

소유지수	영어 표현	한국어 표현
1	관계절 형식	관계절 형식
2		
3	<i>of</i> 구문	
4	<i>of</i> 구문, <i>one's</i> 구문	‘의’ 구문
5		

6		‘의’ 구문, ‘Ø’구문
7	one’s 구문	
8	one’s 구문, one’s own 구문	‘의’ 구문, ‘Ø’구문, ‘-만의’ 구문
9		
10	one’s own 구문	‘-만의’ 구문

b. 1인칭

소유지수	영어 표현	한국어 표현
1	관계절 형식	관계절 형식
2		
3	of 구문	단수적 ‘우리’
4	of 구문, one’s 구문	
5		‘의’ 구문
6		
7	one’s 구문	‘의’ 구문, ‘Ø’구문
8	one’s 구문, one’s own 구문	
9		‘의’ 구문, ‘Ø’구문, ‘-만의’ 구문
10	one’s own 구문	‘-만의’ 구문

이와 같이 소유관계 의미지도는 언어 간의 구체적 어휘와 구문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소유구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소유지수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소유지수에 가장 적절한 소유구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소유지수 4의 *my*로 표현된 구문은 한국어에서 단수적 ‘우리’ 번역이 될 것이며, 소유지수 7의 *my*는 ‘내’ 혹은 ‘나의’로 번역될 수 있다.

#### 4. 맺는말

소유구문이 영한번역에 도전으로 여겨지는 이유로는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별로 소유관계에 따른 가능한 구문의 차

이가 비교적 현격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한국어 단수적 ‘우리/저희’의 용법 때문에 토속화를 추구해야 하는 장르의 번역과정에서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고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소유구문을 언어 내 비교와 두 언어 간의 대조분석을 통하여 구문별 허용 관계의 위계성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Haspelmath(1997, 2003), Croft(2001, 2003) 방식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라는 인지언어학적 개념을 소유구문의 의미에 도입하여 영어와 한국어 소유구문 번역과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복잡하고 애매해 보이는 관계가 의미지도 상에 비교적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구문의 번역 과정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1-30.
- 윤재학. 2009. 「소유의 의미유형: 한영소유구문의 의미차이」 『언어와 정보』 13.1: 93-125.
- Albir, Ampro and Fabio Alves. 2009. “Translation as a Cognitive Activity.” In Jeremy Munday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54-73.
- Berman, Antoine. 2000. “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 Lawrence Venuti. (Tr.)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84-97.
- Croft, William.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P.
- \_\_\_\_\_. 2003. *Typology and Universals*.(2nd) Cambridge: Cambridge UP.
- Haspelmath, Martin. 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Oxford UP.
- \_\_\_\_\_.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Michael Tomasello (ed.),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vol. II. Mahwah, NJ: Erlbaum. 211-42.

- Hatim, Basil and Jeremy Munday.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Longman.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P.
- Kempson, Ruth.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P.
- Langacker, Ronald. 1995. "Possess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John Taylor and Robert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New York: Mouton de Gruyter. 51-79.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Munoz, Ricardo. 2007. "Traductologia Cognitiva y Yraductologia Empirica." In Gerd Wotjak (ed.) *Quo vadis, translatologie?* Berlin: Franck und Timme. 267-78.
- Nikiforidou, Kiki. 1991. "The Meanings of the Genitive: a Case Study in Semantic Structure and Semantic Change." *Cognitive Linguistics*, 2: 149-205.
- Partee, Barbara. 1983/1997. "Uniformity vs. Versatility: The Genitive, a Case Study." Appendix to Theo Janssen (1997), "Compositionality," In Johan van Benthem and Alice ter Meulen (eds.) *The Handbook of Logic and Language*. New York: Elsevier. 464-70.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1992. From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eds.)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 36-54.
- Taylor, John.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 \_\_\_\_\_. 1996. *Possessives in English: An Exploration in Cognitive Grammar*. Oxford: Clarendon.
- Venuti, Lawrence. 1997. The American Tradition. In Mona Baker (ed.)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305-15.

[Abstract]

**Conceptual Space and Semantic Map in Translatio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Possessives**

Yoon, Jae-Hak  
(Kyung Hee University)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pose a big challenge to an adequate theory of transl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Various relations in English are expressed and some of them are shared by the inflectional possessive *one's*, the prepositional possessive construction *of*, and the determinative possessive *one's own*. One-to-one correspondence is hard to find between English and Korean possessives, particularly because *wuri* the 'singular *we*' is a big part of the Korean possessive constructions in examples such as *wuri abeoji* 'my father' and *wuri nampyeon* 'my husband'. The pervasive nature of the constructions also adds to the total effect of difficulty.

Drawing on Haspelmath (1997, 2003) and Croft (2001, 2003), we propose a conceptual space and semantic map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possessive construction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is approach locates each possessive construction on the semantic maps, clearly delimiting the various relations and overlaps in the constructions within and across the languages. The murky relations between the constructions are illustrated to be manageable under the approach. Consequently, this study renders promising further applications of the conceptual space and semantic map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other constructions.

▶ Key Words: conceptual space, possessive construction, semantic map  
개념공간, 단수적 '우리', 소유구문, 소유의 의미, 의미지도

윤재학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교수

jyoon@khu.ac.kr

관심분야: 번역학, 의미론, 화용론

논문투고일: 2009년 07월 14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